

# 양현종 '지독한 아홉수'... 불펜난조에 10승 불발



KIA-한화 더블헤더 1차전, 6.1이닝 3실점  
김선빈·최형우 홈런포로 팀은 6-4 승리

KIA 양현종의 10승 도전이 또 실패로 끝났다. 양현종이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1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3-1로 앞선 6회 1사 1·2루에서 물러난 양현종은 이 이닝에서 팀이 3-3 동점을 허용하면서 승리투수 자격을 놓쳤다. 지난 8월 28일 SK전 승리 이후 양현종의 승수는 '9'에서 멈췄다.

아홉수를 넘기 위한 양현종의 7번째 도전,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1회초 양현종이 선두타자 이용규에게 중전안타를 내줬지만, 유격수 앞으로 향하는 타구 두 개로 이닝을 종료했다.

정진호의 땅볼 때 선취투수 이용규를 2루에서 잡아냈고, 노시환의 타구는 6-4-3으로 이어지는 병살타였다.

이어진 1회말 공격에서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한방'도 나왔다.

투타자 최원준의 우전 안타로 시작된 1회말 2사 2루에서 4번타자 최형우가 장민재의 초구 136km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우측 풀 맞는 투런포를 장식했다.

2점의 리드를 안은 양현종은 2회에도 선두타자 반즈를 내보냈지만, 추가 진루는 허용하지 않았다.

최재훈의 3루 땅볼 때 2루에서 공을 잡은 김선빈이 1루 송구를 하려다 주자 반즈에 걸려 넘어졌다. 수비 방해가 선언되면서 아웃카운트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갔다. 이어 송광민의 헛스윙 삼진으로 2회가 마무리됐다.

3회는 삼자범퇴, 다시 선두타자 이용규가 살아나간 4회초에도 노시환을 병살타로 처리하면서 실점하지 않았다. 5회 1사에서 최재훈에게 우전안타를 내줬지만, 우익수 플라야와 헛스윙 삼진으로 이닝을 종료했다.

하지만 양현종이 6회 또 흔들렸다.

8번 오선진과 9번 박정현에게 연속 안타를 맞은 뒤 이용규의 3루 땅볼로 1사 1·3루. 대타 최진행과의 승부에서 3루수 앞으로 공이 향했다. 김태진에게 김선빈이 공을 넘겨받으면서 투 아웃을 만들었지만, 1루에 던진 공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유민상이 포구 과정에서 베이스를 밟지 못했다.

병살플레이에 실패한 사이 3루에 있던 오선진이 홈에 들어오면서 2-1이 됐다. 7회 양현종이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1사에서 연속안타가 나오면서 불펜이 움직였다.

두 번째 투수로 나온 홍상삼이 오선진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박정현에게 볼넷을 내줬다. 2사 만루 상황에서 좌타자 이용규와의 승부를 위해 이준영이 투입됐다.

승자는 이용규였다. 이용규가 풀카운트 승부 끝에 이날 경기의 세 번째 안타를 만들면서 승부를 3-3 원점으로 돌렸다.

이와 함께 양현종의 10승도 사라졌다.

양현종의 승리는 무산됐지만 KIA는 한화 마무리 정우람을 홈런 두 방으로 흔들며 4연패에서 벗어났다.

8회초 박준표가 노시환에게 시즌 두 번째 피홈런을 맞으면서 3-4. 한화가 8회말 마무리 정우람을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선두타자 김선빈이 풀카운트 승부 끝에 정우람의 9구째 137km 직구를 잡아당겼다. 공이 펜스를 살짝 넘어가면서 김선빈의 시즌 첫 홈런이 기록됐고, 경기는 다시 4-4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 터커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뒤 최형우의 '한방'이 나왔다.

1회초 선제 투런포를 장식했던 최형우가 이번에는 정우람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리드를 되찾는 2점 홈런을 장식했다.

그리고 전상현이 9회를 삼자범퇴로 막으면서 최형우의 두 번째 홈런은 결승타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0승 어렵네~” KIA 양현종이 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3-1로 앞선 7회초 1사 1·2루에서 마운드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날에서 불펜진이 동점을 허용하면서 양현종의 10승은 또 무산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 KIA, 구단 앱 가입자에 무료 이모티콘



KIA타이거즈가 구단 앱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구단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증정한다.

행사 기간은 12월 5일까지로 KIA 구단 앱에 가입하면 카카오톡 '호야' 이모티콘 24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앱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구

단 홈페이지 아이디로 본인 인증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 비회원도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

'호야'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위해 새로 개발한 캐릭터로 KIA 마스코트인 '호랑이'와 '야구 덕후'의 초성을 따 이름을 지었다.

올 시즌 실물 캐릭터로 제작된 호야는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응원전에 나서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30일 대장정 마무리

KIA, 20~30일 홈 8·원정 2경기

KBO리그가 오는 30일 2020시즌의 대장정을 끝낸다.

KBO가 7일 정규시즌 잔여 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으로 미뤄진 34경기는 20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진다.

KIA는 20일 NC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30일 롯데 원정경기까지 10경기를 치른다. 홈에서 8경

기, 원정에서 2경기를 소화한다.

20·21일 홈에서 NC와 마지막 2연전을 치르는 KIA는 22일 대전으로 가 한화와 16차전을 갖는다. KIA는 23일 LG와의 홈경기 뒤 24·25일 삼성과 역시 홈에서 주말 2연전에 나선다.

이어 27·28일 KT와 홈경기, 29일 두산과 홈 최종전을 치르고 30일 사직으로 이동해 시즌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한편 잔여 경기 일정이 우천 등으로 취소될 경우

다음날 대진에 따라 재편성이 이뤄진다.

다음날 동일 대진일 경우에는 더블헤더가 진행되며, 동일 대진이 아닐 경우 ▲발표된 일정의 예비일 ▲동일 대진 두 번째 날 더블헤더 ▲동일 대진 싱글 경기 더블헤더 ▲추후편성 순으로 재편성된다.

복수의 예비일이 편성된 경기가 취소되면, 취소된 경기일부러 가까운 예비일에 먼저 경기가 진행된다. 한 팀의 연전은 최대 8연전까지 가능하다.

한편 포스트 시즌과 관계없는 경기나 우선으로 미뤄질 경우, 정규시즌 최종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막일 사이의 이동일 또는 포스트시즌 기간에도 경기가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

## '가을남자' 최지만

탤파베이 디비전시리즈 1차전 홈런 이어 2차전 3출루... 팀 7-5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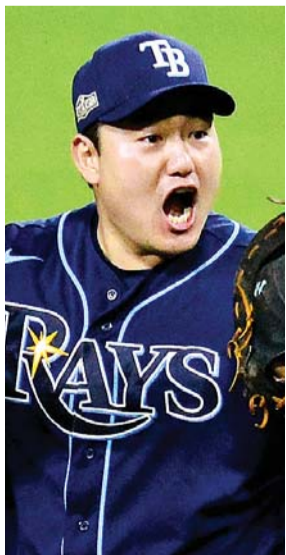
최지만(탤파베이 레이스)이 3연속 타석 출루해 포스트시즌에서 활약을 이어갔다.

최지만은 7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5전 3승제) 2차전에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석 1타수 무안타 볼넷 2개, 몸에 맞는 공 1개를 기록했다.

전날 경기에서 4타석 3타수 1안타 2타점 고의4구 17개를 남긴 최지만은 ALDS 두 경기 8타석에서 5번 출루했다.

탤파베이는 7-5로 승리해 시리즈 전적 1승 1패를 이뤘다.

탤파베이는 8일 오전 8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양키스와 ALDS 3차전을 치른다.



최지만은 1-0으로 앞선 1회말 양키스 선발 투수 우안 데이비 가르시아가 던진 공에 맞아 1루를 밟았지만, 득점하지 못했다.

양키스는 2회 오프너 가르시아 대신 좌완 J.A. 험을 투입했다.

최지만은 3회 1사에서 험을 상대로 볼 4개를 골라 연속 타석 출루에 성공한 뒤 후속 타자 마누엘 마고의 중월 홈런 때 득점했다.

그는 4회 공격에서도 2사 2루에서 볼넷으로 다시 걸어나갔다. 6회 마지막 타석에선 1루 땅볼로 물러났다. 탤파베이는 2회와 3회 4점을 뽑으며 5-1 앞서나갔다.

4회초 수비에서 상대 팀 장칼로 스탠텐에게 좌월 3점 홈런을 맞아 5-4로 쫓겼지만, 5회말 케빈 키어마이어의 중전 적시타로 다시 점수 차를 벌였다.

6-4로 앞선 6회말 공격에선 오스틴 메도스가 결정적인 중월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양키스 스탠텐은 이날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는 등 3타수 2안타 4타점으로 활약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포스트시즌 4경기에서 5홈런 11타점을 기록하는 엄청난 위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포스트시즌에서 친 안타 5개를 모두 홈런으로 장식했으며 단일 포스트시즌에서 4경기 연속 홈런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 “날씨 상관없어” 이미림의 자신감

내일부터 LPGA 메이저 KPMG 챔피언십... 우승후보 꼽혀

여자골프 2020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430만 달러)은 코스가 어렵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9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대회가 열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스퀘어의 에러니밍골프클럽(파72·6831야드)을 둘러싸고 '코스가 길고 그린의 복잡하다'는 등의 평가가 나온다.

또 예년과 달리 대회가 여름이 아닌 가을에 열린다는 점도 변수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6월에서 석 달 넘게 연기된 탓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미림(30)과 박성현(27)은 문제없다며 자신감을 보인다. 이미림은 광주 출신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골프에 입문했다.

올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피레이션에서 우승한 이미림은 이번엔 자신의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에 도전한다.

이미림은 6월이 아닌 10월로 개최가 미뤄진

상황에는 “항상 더울 때 시합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쌀쌀하다”면서도 “내 경우, 날씨는 상관없다”고 개의치 않았다.

이 대회에서 2018년 우승, 2019년 준우승을 기록한 박성현은 “그동안 코스가 굉장히 잘 맞았고, 컨디션도 좋았다”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유독 좋은 성적을 냈던 비결을 설명했다. 그는 기존 자신의 성적을 돌아보면 어려운 코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며 “컨디션과 기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집중력이 더 생기는 것 같고 어려운 코스에 대해서 캐디와 땀 더 집중하다 보니 좋은 성적이나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9일 1라운드에서 박성현은 재미교포 크리스티나 김(미국), 메간 강(미국)과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고, 이미림은 양희영(31), 아시아라 무뇨스(스페인)와 한 조를 이룬다.

/연합뉴스